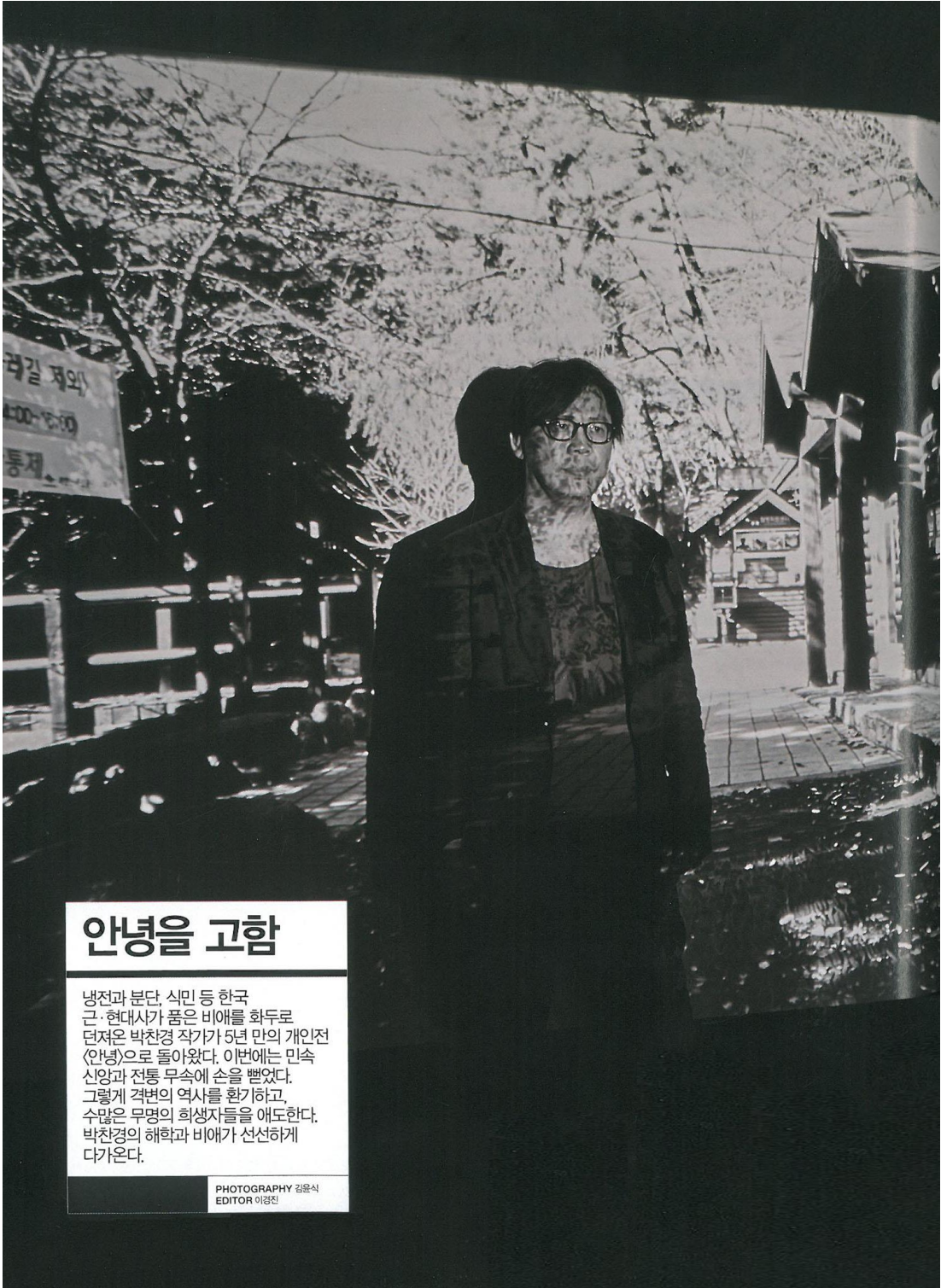


안녕을 고함

July, 2017 | 이경진 에디터

page 1 of 4



안녕을 고함

냉전과 분단, 식민 등 한국 근·현대사가 품은 비애를 화두로 던져온 박찬경 작가가 5년 만의 개인전 〈안녕〉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민속 신앙과 전통 무속에 손을 뻗었다. 그렇게 격변의 역사를 환기하고, 수많은 무명의 희생자들을 애도한다. 박찬경의 해학과 비애가 선선하게 다가온다.

PHOTOGRAPHY 김윤식
EDITOR 이경진

INTERVIEW

박 찬경이 작품에 표현하는 방대한 양의 인문학적, 예술학적 사실들을 보고 싶다면 **공급해진다. 저널리즘적인 자료를 발굴하고 뜯어보는 일이 당신의 취미인 것은 아닐까.**
 사실 진짜 취미 생활은 사진이다. 오늘도 카메라를 들고 왔다. 거의 매일 가지고 다닌다. 오늘은 디지털카메라를 들고 왔는데, 보디만 디지털카메라고 렌즈는 필름 카메라에 쓰던 거다. 보디는 라이카 M 모노크롬이다. 렌즈는 1950년대에 만든 것이다.
보디와 렌즈가 한 몸이었던 것처럼 어울린다. 멋있지 않나? 사실 내 물건은 아니고, 형(박찬욱 감독)에게서 잠깐 빌렸다. 아까 저널리즘적인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취미나 물었는데, 신문 같은 걸 읽을 때면 사진을 유심히 보는 편이다. 사진집 보기도 좋아한다. 사실 나 자신도 사진을 왜 특히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냥 재미있는 매체인 것 같다.
사진으로 석사 공부를 마치지 않았나? 그것 역시 이유 모를 호감 때문이었나?
 꼭 그렇지는 않다. 그랜 사진 공부의 목적이라기보다 그 학과의 선생님을 좋아했다.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었거든. 그의 작업이 너무 좋고, 그가 가르치는 내용이 좋아서 그런 선생에게서 무엇이든 배우고 싶었다.
사진은 언제부터 찍기 시작했나?
 대학 다닐 때부터다. 그때 사진 참 좋아했다. 형이 사진반이어서, 옆에서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다.
그때는 필 찍는 게 좋았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만날 일상적인 풍경이 재료가. 같이 노는 친구들 사진도 많이 찍었다. 멋있고 아름다운 것보다는 약간 외진 곳, 외진 풍경을 주로 담았다. 어느 식당에 들어섰다고 치면, 문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 말고 화장실을 찍는 다든지. 보통은 어떤 구석을 찍었던 것 같다. 외진 곳에 관심이 많았다.
이번 전시에 '승가사 가는 길'이라는 작품이 있다. 절에 오르는 산길을 촬영해 슬라이드 프로젝션으로 전개했다. 산을 오르다 보이는 전경을, 매점 앞의 파인 땅을 찍은 장면들이 이어진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땀겨 사진은 거의 없었다. 낯설더라. 이미 너무도 익숙한 풍경을 조금 비틀었을 뿐인데, 생경하기만 했다. 보통의 사진가들이 그런 것에 관심이 많지 않나. 어떤 확실적인 혹은 보편적인 시야에서 벗어난 곳에 흥미를 느낀다. 나도 그런 것 같다.
5년 만의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의 대표작은 역시 26분가량의 영상으로 완성된 '시민의 숲'이다.

숲'이다. 김수영의 시 '거대한 뿌리'에서 착안했다. 비극적인 현대사를 거치며 희생된 무명의 이들을 위한 에도의 장을 벌였다. 3채널 비디오가 꼬리를 물듯 이어진다. 2017년 6월에 개인전으로 선보였지만 실은 2016년에 완성된 필름 아닌가. 오프닝과 함께 열린 간담회에선 '전시를 열 때, 당연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일 줄 알았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시민의 숲은 김수영의 시 '거대한 뿌리'와 오윤의 그림 '원귀도에 대한 응답 차원에서 완성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선, 어떻게 읽힐지 모르겠다는 생각부터 한 것이 사실이다. 정권 교체가 안 되었다면 관객은 아무래도 이 작품을 보며 스트레스를 좀 받았을 테지. 분위기도 침울했을 것 같다. 그런데 지금 갤러리를 오가며 살펴니, 작품을 보고 나오는 관객의 얼굴이 다 밝다. 무겁게 보지 않고,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작품이 된 거다.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실제 정황과 작품이 너무 밀착되면 아무래도 더 많은 필터가 작품에 걸 테니까, 작품을 있는 그대로, 선선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 의외 좋다.
박찬경의 작품 앞에선 대개 두 가지 감정이 중첩된다. 분명 익숙한데, 한편으로는 너무도 낯설다. 이번 전시를 보면서는 그러한 이중적 감정이 증폭되더라. 이전에는 민족이 지나온 역사적 질곡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그 문제를 민족 신앙과 전통 무속을 통해 드러냈다. 전통적인 신앙과 무속이라는 재료가 익숙하고도 낯선, 이중적 감정을 끌어내는 것 같았다.
 전 세계적으로 비교하면, 한국 사람의 행복 지수는 결코 높지 않다. 누군가는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 거라 생각할지 모르지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나는 우리의 근대성 안에 그 문제가 있다고 봤다. 그 근대성이 지닌 정신적인 문제가 깊다고 봤다. 한국 사회는 전통문화와 거의 단절되어 있다. 지금의 문화가 전통 사회와 완전히 단절되면서, 생활의 양식이나 틀이 확 바뀌었다. 그러니까 원활하고 무리 없는 적응이 어려운 상태가 된 것이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기준이 다 무너졌다. 공동체 안에 든든하게 뿌리 내린 삶의 양식이 소멸된 사회에는, 공동체적 윤리가 절대 생성될 수 없다고 본다. 물리적 빈곤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정신적인 소외감을 다스리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종교, 신앙이나 믿음의 변화가 근대 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국 사회는 어떻게 해서 전통문화와 단절되었는지에 관심이 생겼다.
언급했다시피 그 단절은 오랜 세월

진행되어왔다. 현재 대중은 그러한 주제에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는 고민이 없었나?
 있었지. 갤러리 전시니까 작품이 팔려야 하는데, 이런 건 무서워서 잘 안 살 테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결국 편견 아닌가? 예술이란 그 편견에서 좀 자유로워지자는 선언이지 않나. 편견을 없애자고 말하려는 게 예술인데, 그래도 없어질 리 없다는 결론을 내고 시작해서야 되겠다.

"갤러리 전시니까 작품이 팔려야 하는데, 이런 건 무서워서 잘 안 살 테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결국 편견 아닌가? 예술이란 그 편견에서 좀 자유로워지자는 선언이지 않나. 편견을 없애자고 말하려는 게 예술인데, 그래도 없어질 리 없다는 결론을 내고 시작해서야 되겠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된 이후, 박찬경이 보낸 시간이 '시민의 숲을 만들었다. 그 당시 혹은 그 이후, 누군가는 침묵하고 누군가는 분노하며 다양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했나?
 아마 나쁜 아니라 모두가 그랬을 거다. 세월호 침몰 이후 생겨난 여러 상황을 보면 우리가 함께 깨달은 건 '사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망가져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의 말도 이해하는 쪽이었다.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나는 내 일을 성실히, 제대로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분노한 어떤 사람들은 침묵하는 이들을 욕했다. 그런데 나는 침묵하는 사람들을 이해했다. 나도 처음에는 어떤 말도 못하겠더라고.
그렇다면 이 작품을 완성하기까지 꽤나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쳤을 것 같다.
 그랬지만 뭐 나만 힘들었다. 모두 마찬가지로.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실 그 일 이후로 그와 관련된 문화적 산물이 많았어야 했지만, 그다지 빨리 나올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 많이 나와야겠지. 비판하는 일이야 얼마나 쉬운가. 이번 전시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전시장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작은 미술사'다. 박찬경이 새로 접붙인 미술사의 면면이 흥미롭고 탁월했다. 예전에 선보였던 '파워 톨로'가 생각나기도 했다. 박찬경이 특유의 '거리 두기'를 통해 지나온 시간과 현재의 고리를 찾아낼 때, 특히 재미있는 작품이 탄생하는 것 같다.
 이전의 작품을 대부분이 거리를 좀 두는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거리 두고 본 작품이 '작은 미술사' 말고는 없다. 굉장히 감상적이다.

INTERVIEW

이번 전시가 이전의 전시들과 다른 점이다. 정치적 해야 할 때 멀리서 보고, 전통 무속을 다룰 땐 가까이 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가?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무속에 대한 애착 같은 게 있다. 간혹 스스로도 좀 놀라는 그런 애착이다.

어떤 이유로 전통 무속과 민속 신앙에 골몰하게 됐나?

1980년대 김수환 선생님이나 김윤희 선생님처럼 무속을 탐구하고 말하던 학자들이 없었던 나는 이런 것 못했을 거다. 대단한 분들이다. 20대, 30대에 전국을 누비며 그런 일을 하셨으니까, 그분들이 왜 그렇게 고향을 좋아했는지 영향을 보면 이해된다. 나 역시 젊었을 때는 그런 거 따라다니는 게 별로라고 생각했다. 현대적이지 않으니까, '옛날 거 좋지, 좋은 거 누가 모른다?'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대에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가 현대적인 것 안에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 과거의 것에서 힘을 발견하게 되더라. 그런 측면에서 관심이 생겼다.

한국 현대사를 다루고 민속 신앙을 주제로 삼는다는 것이, 관객의 생각에는 그저 박찬경이 선택한 것일지 모르겠지만, 작가 본인에게는 불가피한 혹은 숙명적인 것일 수도 있겠다.

그렇다. 나는 작가가 어떤 고유한 세계, 작가만의 독특한 것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편이다. 그런 이야기 믿지 않는다. 모두가 어디선가 주워둬고 보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어디에도 뿌리를 두지 않은 자신만의 독특한 것이 정말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있다. 물론 작가에게는 저마다 특색이 있다. 소스를 가공하는 방식도 모두 다르다. 그러나 그런 너무 일반적인 일이지 않나? '이 작가만의 고유한 어떤 세계라는 표현을 굉장히 싫어한다. 당연히 고유하지, 그럼 고유하지 않은가? 그럼 작가에게 중요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해석의 방식, 어떤 식으로 종합하고 해석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이것 역시 그렇게 의미 있는 말 같지는 않다. 어떤 작가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라는 게 정말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다. 모든 작가들이 다들 여기저기서 들은 걸로 작업한다. 무속이나 민속 신앙이라는 주제에 관심이 생겼을 때, 나 자신을 스스로 좀 의심했다. 결국에는 내가 이해하기 힘든 세계일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굉장히 보편적인 세계라고 느꼈다. 그저 인간의 역사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 있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무속과 민속 신앙은 결국 신에 대한 두려움과 복을 비는

마음에 관한 것이다. 종교의 가장 보편적인 정신 아닌가. 서구 미학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아름다움에 관한 학문이고 또 하나는 숭고에 관한 학문이다. 그 숭고가 모두 종교와 관련이 있다. 미학적 관점에서 숭고미는 아주 보편적이고 오래된 것이다. 무속을 너무 특수한 문화로 보는 것은 문제다. 현대의 무속 문화가 미신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무속 문화 자체가 미신 문화라는 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편견이다. 사실 예술가가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보편적이다. 백남준은 작가가 무당이라고 생각하고 굿도 했었다. 화가 박승준은 아예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들 아닌가.

“무속을 특수한 문화로 보는 것은 문제다. 현대의 무속 문화가 미신적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무속 문화 자체가 미신 문화라는 건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편견이다. 사실 예술가가 이런 주제에 관심을 갖는 것도 보편적이다. 백남준은 작가가 무당이라고 생각하고 굿도 했었다.”

어느 인터뷰에서, 한국의 창작 환경에 대해 조금 독특한 견해를 밝힌 기억이 난다. 재능 있는 예술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라고 했었다.

한국의 창작 환경은 물론 어렵다. 미술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고정관념 부분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하지만 미술과 관련한 제도는 양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상당히 잘 갖춰져 있다. 다른 아시아 도시에 비하면 말이다. 생활인으로서 보자면 한국 사회는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많은데, 그만큼 예술가에게는 변화무쌍하고 무궁무진한 소재가 즐비한 곳이다. 나는 우리 주변에 언제나 있었지만 아무리 들여다봐도 잘 모를 것들을 유심히 보는 편이다. 한국에는 그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소재도 참 많다. 한국이라는 나라에는 예술가가 이야기할 것이 얼마나 많은가. 작가에게는 이런 나라가 또 없다. 성공한 한국 영화는 한국 사회가 가진 복잡한 사회 문화적 양상을 잘 녹인 경우가 많다. 아마 내게 유럽에 가서 레지던시 같은 걸 하려면, 엄청난 공포심에 휩싸일 거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의 소재로 작업한다는 건 내게 그런 의미다.

얼마 전, 까르띠에 현대미술재단의 전시 <하이라이트>가 개막했다. 그 전시에도 재단의 커미션을 받고 형인 박찬욱과 함께

‘짜깁산스러운 이름으로 참여했다. 며칠 뒤에는 아트 바젤에 참가하기 위해 스위스로 간다고 들었다.

이제 웬일이냐 싶다. 솔직히 나는 전시에 많이 초대되던 작가가 아니다. 작품도 많지 않고, 일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영화도 했다가 큐레이팅도 했다가... 이렇게 작가적인 활동과 이벤트가 물린 것은 내게도 특이한 경우가. **작가 박찬경에 대한 반향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게다가 이번 개인전은 갤러리에서 어느 전시인에도 불구하고 관객이 상당수 들고 있는데,**

보통 미술 전시를 하면 반응이 별로 없다. 그게 일반적이다. 관객도 별로 안 든다. 그런데 미술이라는 매체 자체가 원래 그렇다. 절대 다수의 대중을 기반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껏 그러려니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관객의 반응이 좀 있는 것 같다. 나 자신은 의구심이 드는데, 이게 정말 반응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SNS가 발달해 그렇게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다. 5년 만의 개인전인데, 5년 전에는 SNS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거든. 그래서 이번 전시에 반응이 좀 있다고 느끼는 것인지도 모른다. 미술과 SNS의 관계도 연구해볼 만한 것 같다. 영화나 음악 같은 것은 SNS와 잘 맞는 다. 보거나 듣고 나면 좋다. 나쁘다, 재미있다, 재미없다, 연기가 이상하다, 음악이 이상하다, 감동받았다는 등의 말들을 쉽게 할 수 있지 않나.

영화나 음악은 즉각적이고 개인적인 감상의 표현이 가능한 매체인 반면, 미술은 아무래도 감상을 빨리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뜻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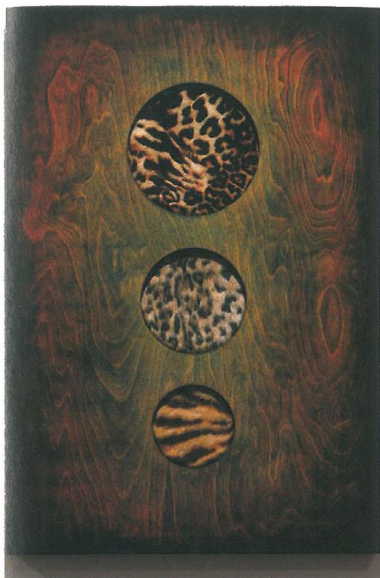
그래서 미술 감상과 SNS가 잘 어울리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미술 작품의 소비가 SNS에서 이뤄지는 게 적절하냐는 말은 아니다. 하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작가 입장에서는 깊이 있는 리뷰 같은 것을 더 기대하게 되니까. **지금도 청운동 작업실을 쓰나? 어느 기사에 묘사된 그곳의 풍경이 인상적이었다. 4단짜리 책장으로 둘러친 공간이라 했는데,**

여전히 그 작업실을 쓴다. 책이 너무 많다. 대부분의 책을 책이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 문제다. 작업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빈 벽인데, 지금 비어 있는 벽이 거의 없다.

뭔가를 쉽게 못 버리는 성격인가 보다. 뭐든 잘 못 버린다. 특히 책으로 둘러친 풍경은 나에게 너무 익숙해 더 그런 것 같다. 아버지도 책을 많이 가지고 계셨다. 형도 책을 좋아했고, 형이 가진 책에 비하면 나는 반도 안 될 거다.

1. 범은 밖5, 안호, 이재나 무 편에 단형 78.5×54cm, 2017. 2. 사인의 숲, 3. 3월 비디, 28면 6호, 2016. 3. 월성도(안면), 명투, 자차나무 편에 단형, 108×200cm, 2017. 4. (원색) 월성도(빛면), 명투, 자차나무 편에 단형 108×200cm, 2017. (오른쪽) 송기사가 가는 길, 멀티 채널 사인살이 가는 길, 연속 상영,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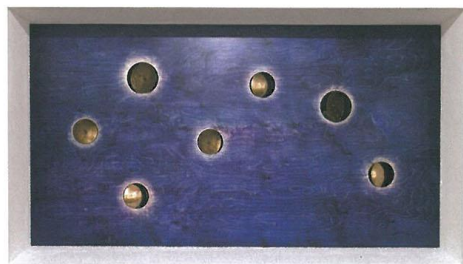
INTERVIEW



1



2



3



4

COLLEZIONE PERMANENTE - GALLERIA D'ARTE CONTEMPORANEA - MILANO